

민주, '정책페스티벌'로 민생 '방점'

당원들이 직접 정책 제안하고 선정

당 지도부, 현안 언급 없이 메시지 집중

野국정조사 요구에도 정면대응 안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에 방점을 찍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당 최초로 개최하는 '정책페스티벌' 띄우기에 나섰다. <관련기사 4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치전선 확대를 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면 대응하는 대신 민생을 고리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현안 관련 언급을 삼가고 오직 정책페스티벌에만 메시지를 집중

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마치고 '2019 정책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된다. 400만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라며 "집담대회 때 당을 정책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플랫폼 통해 (당원들이) 의견 말하고 함께 참여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손으로 직접 우리당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 정책정당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너를 활성화하려면 시범스가 빛을 받고 뉴런이 연결돼야 한다. 오늘 우리의 정책 아이디어는 각자의 스펀스로 빛을 받고 토론은 뉴런을 연결시키는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당원들이 제시한 정책을 잘 세워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정책정당이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다. 당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스스로 진화하는 민주당 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개최하는 정책페스티벌은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행사다.

정책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을 맡은 박광문 최고위원도 "정책이 없는 정당, 정쟁만 일삼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퇴출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책임있는 집권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히 보여드리고 당원들이 중요한 당의 정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당의 혁신성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정당이라는 것은 원래 국민들 여러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집권으로 실현하는게 중요하다. 정책은 시민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책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현안도 많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 관심을 가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보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면대응을 삼가며 민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은 실제 국정조사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해 여당의 반대로 협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 야권에서도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통과될리 없다"며 "조국 장관 건을 갖고 국정 조사를 하려는 야당의 주장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기도 오히려 '조국 파면'이라는 것을 정기국회 내내 끌고 가면서 정쟁 국회에만 몰두하려는 노골적인 정략적 의도"라고 말했다. /뉴스1

도의회 성경찬·나인권 의원

민주당 정책 페스티벌 참석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과 나인권 의원(김제2)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에 정책심사단으로 참석했다.

성경찬 도의원은 "정책정당으로서 당원의 손으로 정책을 만드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정책심사단으로서 공정하게 참여해 정당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나인권 도의원은 "본선에 진출한 정책이 국가 발전과 전북도의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는 권리당원, 당 연구위원, 보좌진 등으로 구성된 300명의 정책심사단이 한다. /고민형 기자

도의회 문건위, 익산서 현장의정활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KTX 새뜰마을사업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지난 2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익산시 중앙동 일원)과 새뜰마을 사업 현장(KTX 익산역 주변지구)을 방문, 현장을 점검했다.

문건위원들은 먼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익산시 중앙동 일원을 방문하여 '역사(驛史街) 문화로(文化路)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보고를 청취, 익산 근대역사관 주변의 역사문화예술 거리와 주변 시장을 시찰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익산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민편의시설 조성, 빈집포 등 노후건물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조성,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다음으로 문건위원들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 현장인 창인동2가 KTX 익산역 주변지역을 방문하여 현재 추진중인 좁은골목길 확장 공사현장과 녹지조성을 추진중인 현장을 점검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우리 지역 내 물리적 노후화 및 인구감소, 상권이동 등으로 인해 낙후된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다시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장소로 회생시킬 수 있도록 관심아닌 수요자 중심의 시설개선사업과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황의탁 도의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발의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 의원은 최근 제366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일안통과 돼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황 의원은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재능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삼락농정은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시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김미경 전 법무부장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장관정책보좌관에 김미경(44·사법연수원 33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번호사)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자로 김 전 행정관을 발령지 고위공무원으로 장관정책보좌관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8월 검찰 인사에서 장관정책보좌관에 발령 난 조두현(49·33기) 검사와 함께 근무한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부터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법무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조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 분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광문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내달 2~21일 국정감사 실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국감 이후 예산안 시정연설 청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지난 20일 각 당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가진 만찬 회동에서 이같은 정기국회 일정 조율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야는 오는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달 1일 사회·문화 등 나흘간 각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정기국회

막을 올리기로 했지만, 국감 일정을 놓고는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을 마친 직후인 다음달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로 한 차례 무산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 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31일께 열 예정이다. /뉴스1

제46회 축성566주년 추

고창모양성제

The 46th Gochang Moyangseong Festival

2019. 10. 3(목)~7(월) 5일간

모양성(고창읍성)

역사는 미래다!

주관 (사)고창모양성보존회

후원 대한민국의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고창군 NH농협 고창군지부 고창군 지역농족회 전북은행 웰팩시티 k2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한국농어촌진흥공사 전북농업기술원 SJ고창군산림조합